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81호
8월 23일
2025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말씀충만·성령충만·은혜충만”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은혜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다나엘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인내하고 성취하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마리아처럼 주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원성전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엡 4:13)’는 주제로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참석하여 열렸다.

학생들은 주제를 따라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한층 깊고 풍성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교회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서, 학생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정립되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둔 비전을 가지고 즐겁게 교회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데 주안점을 두어 이번 수련회를 진행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조명제 목사는 수련회 주제 말씀을 본문으로 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제 목의 설교로 본문 말씀이 교훈하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학생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었다.

조명제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배와 기도와 주님 안에서 하는 봉사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더욱 다듬어지고 온전해지도록 축복해주었다. 이어서 학생들은 성령충만기도회와 특강을 비롯하여, 침례식과 2박 3일 동안 실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된 여러 가지 경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 이와 함께 찬양하고 간증하며 서로 믿음을 북돋워주는 즐겁고 은



헤로운 시간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를 위한 사명감이 한층 크고 깊어졌다.

“예수님의 기쁨이 될래요!” 아동부서 여름성경 학교 마쳐

올해 교회학교 아동부서의 여름성경학교가 ‘은혜의 길’이란 주제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남게 각 성전과 교회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와 소망부 등 각 부서별로 은혜롭게 열렸다.

많은 어린이들이 불신 친구들을 전도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여졌다. 어린이들은 찬양과 율동, 예배, 성경공부와 창작 활동 등 성경의 가르침과 재미가 어우러진 다양한 순서를 통해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하여 더욱 굳센 믿음을 갖게 되었고, 즐거운 놀이와 교제와 식사 시간에 교회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와 함께 기도회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쥘과 소망을 위해, 자라면서 더욱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예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구와 여러 봉사기관들의 도움과 헌신 그리고 교사와 보조교사로 참여한 성도들의 봉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름행사가 되었다.

은혜와진리교회 여름수련회 및 여름성경학교



“귀어신학 OUT” 기장 분열 귀어 지지자들 단호히 경계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기장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

우리는 한국기독교교장교회 목사와 장로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 왔다. 과거 기장은 자랑스러운 교단이었다.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저항했고, 민주화, 평화, 통일, 생명운동 등 커다란 저항점을 걸고 줄기차게 걸어왔다. 한신대는 병적으로 옮기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교였다. 김재준·김정준·박봉량·전경연·이장식 등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한국 신학을 대표할 정도로 최고의 교수진이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한국 신학계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병적으로 옮기면서 한신대는 신학적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특히 귀어신학이 한신대에 퍼지면서, 귀어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향린교회를 중심으로 한 귀어 옹호·지지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용동체의 존재로, 귀어자(동성애자)로 전락시키는 흐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귀어(동성애) 인권을 사랑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과장한 방향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

귀어신학, 귀어들을 옹호하고 귀어축복식을 거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인가? 제7문서에 ‘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성평등’ 용어가 들어가야만 진보가 되는가? 귀어신학을 번역한 자를 한신대 교목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로 된 임명으로 보는가? 한신대 신대원 채플실에서 ‘드래그콘’을 공연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진보인가? 귀어신학을 추진하는 자를 신대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맞는가?

한국 교계는 거의 모두가 귀어신학을 적극적으로 이단시하고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기독교교장교회는 홀로 거꾸로 가는가? 이것이 진보이고, 이것이 한국기독교교장교회 나야 할 길이라 생각하는가?

기장은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성경을 토대로 민주화, 평화, 통일, 생명운동을 해왔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귀어신학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성경에 일치한다고 보는가?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왜 귀어신학을 옹호·지지하는가? 왜 귀어들의 인권만을 최우선시하는가? “예수님도 귀어(동성애자)”라며 신성을 모독하는 귀어신학을 그대로 방치할 셈인가?

한국기독교교장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바로 귀어 지지자들이다. 그들이 건강한 교단을 서서히 분열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 위원회로 변경시키는 시도를 했지만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저지시켰다. 그들은 귀어 교단으로 만들어 가려고 끊임없이 관찰시키려는 작업(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평등)을 계속하고 있다. 타 교단에서는 거의 모두가 귀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교단 분열이 아니라 교단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나섰다. 귀어 지지자들이 교단에서 활발할수록, 우리 교단은 결국 한국교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활동을 차단하는 길이 교단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나가는 길이다.

귀어 지지자들은 교단 안에서 소수이지만, 총회 각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 그들이 교단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속지 말자. 그들은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우리를 교단 분열자로 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교단의 분열자는 귀어 지지자들이다. 그들은 교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귀어를 지지하는 교단으로 만드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 만약 귀어신학이 교단 내에서 허용된다면, 교단 내 중·대형 교회들이 상당한 내홍(문쟁이나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참된 신앙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무조건 맹종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것이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귀어(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 모두를 극우나, 극한 혐오자며 차별자라고 정죄하며 교단을 분열시키려는 무리들을 단호히 경계한다.

지금까지 신학교의 신학 사상 흐름은 안타깝게도 다원주의·혼합주의·인본주의가 주를 이루었다. 강단에서도 복음을 말하는 것 같으나, 성경을 윤리 교과서로 전락시켰다. 신대원 채플실에서 열린 한신 50주년 운동사 기념예배 때, 신대원 원우회 대표회장자 대표 기도 마무리로 ‘민중의 스승이신 예수 선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참석했던 많은 목사들이 화답짝 놀란 적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론은 사라지고 혁명가 예수가 나오다니! 신학이라는 이름을 ‘사랑’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에 포장해 그동안 충분히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 사상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왔던 것이다.

이런 흐름에 대해 교단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중,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선교대회를 열게 됐다. 이것이 극우인가? 혐오인가? 기장 총회 게시판에서는 선교대회를 저지하려는 내용으로 도배중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자신을 살피고 교단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운동을 전개하는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기장 소속 목사, 장로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장교회의 전통성을 바로 이어가자는 운동이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목사, 장로 2,000명 서명운동으로 기장은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우리는 기장이 건강하게 진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8월 25-26일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열리는 선교대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는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기독교교장교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
부위원장 유병학 목사(군산 삼성교회),
김성훈 장로(목포 남부교회)
총무 박성화 목사(제주 성산중앙교회)
부총무 오찬우 목사(영암 아름다운교회)
서기 신현천 목사(춘천 새누리교회)
전문위원 박종성 목사(충북 오송교회),
이기남 장로(목포 연동교회)

‘이러한 기도(3)’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은 2:1,2)



조용묵 목사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기도는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소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던 이방 나라 앗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중대한 사명이며 또한 영광스러운 임무였습니다. “그러하여 요나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할 터인데 불행히도 “그러나 요나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마음먹고 옴바향구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출항 대기 중인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배가 출항하여 순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풍을 배다 위에 내리시니 풍파가 대작하여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폭풍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독특한 것임을 간파한 선원들은 승객이나 선원 중에 누군가가 모종의 큰 죄악을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걸렸니다. 요나는 이 폭풍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피 길에 오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즉시 풍량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다에 던짐을 받은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은 2:2~9).

요나는 극한 상황에 처하여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려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을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어떠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굳게 믿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

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는 뻔뻔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물 이 나를 들렀으니 영원까지 하였사오며 깊은 이 나를 애웠고 바다물이 내 머리를 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밧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이미 응답과 구원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즉각 중에 처하게 되나, 회개하면 광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를 환안이 녹이지 못하고 결국 도해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순순히 니느웨로 가서 공작 외쳤습니다. 이제 “그러하여 요나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굶는 배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 소식이 왕에게 알려지자 왕은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일에 동참하여 거룩적인 행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조서를 내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굶는 배를 입게 하고, 여호와께 힘써 부르짖게 했습니다. 악행을 버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회개 있었기에 니느웨 왕과 그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매우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소망과 믿음을 표적했습니다. 감사와 서원을 표명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WEA 서울총회 철회하라’ 규탄집회 열려

사랑의교회 앞 WEA반대목회자성도연합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앞에서 ‘WEA 서울 배도총회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규탄집회가 열렸다. 오는 10월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WEA(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 개최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WEA 반대목회자성도연합(대표 조덕래 목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앞에서 ‘WEA 서울 배도총회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WEA가 지닌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적 성향에 대해 경고하면서 한국 교회가 WEA와의 교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80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개혁신교회 연합단체, 구속 연약의 해방과 사명 강조



양정섭 목사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제80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

배를 드렸다. 이번 예배에는 각 연합단체 소속 교단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예배는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예정 합동 개혁신교회 총회장 이승권 목사의 기도, 개혁신 창단의 특성, 박형렬 목사의 설교, 인사말, 만세삼창, 축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형렬 목사는 롬 8:1-10 말씀을 본문으로 ‘구속 연약의 해방과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과 희

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개혁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구속 연약의 개혁 △오직 연약의 해방 △오직 사명의 사역을 핵심 주제로, 복음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연약을 기억하며,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실천하는 전문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설교했다. 또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무장해 세계복음화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는 인사말에서 “연합단체가 비성경적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을 배격하고, 개혁교회의 전통과 복음주의 정신으로 믿음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교역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만세삼창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대한민국과 북음한국의 번영을 기원하며 합창게 만세를 외쳤다. 이후 찬송가 248장을 합창하고, 김관현 총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에서는 식사와 교제를 나누며 11월 정기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광복, 기념을 넘어 계승과 실천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광복 80주년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광복의 의미를 단순한 국권 회복을 넘어 끊임없는 회복과 재건의 여정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자유와 독립이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의 결과임을 상기시키며, 광복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넘어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미래로 이어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한기총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 역사 왜곡·독도 영유권 주장·강제징용 부정 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평화 대화 재개, 북한인권법 이행과 인권 증진 노력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전쟁 중단·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 협력 △여야 정치권의 이념 대립



극복과 민생 우선 등을 촉구했다.

특히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광복의 메시지가 오늘날 전 세계 억압받는 이들에게도 유효하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기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행동할 것”이라며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진정한 해방을 향해 나아가자고 결의했다.

‘제8회 원로목사 여름산타’, 1천여 노숙인 위로

‘희망과 비전, 그리고 복음’ 서울역광장에서 위로물품 나눠

서울역광장이 무더위 속에 하루 동안 사랑과 나눔의 장으로 변했다. ‘희망과 비전, 그리고 복음’을 주제로 한 ‘제8회 원로목사 여름산타’ 행사가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무더위와 한겨울 삶에 지친 노숙인(자유인) 1,000여 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여름산타’는 매년 겨울에만 등장하는 산타의 이미지를 깨고, 계절과 상황을 가리지 않

는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한국노숙자총연합회와 한국원로목사교회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노숙자총연합회와 한국노숙자(자유인)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1부 예배에서는 김마리아 목사의 인도로 현광희 목사와 과문자 목사가 각각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소외계층과 노숙자(자유인)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윤봉순 목사

의 성경봉독, 박장옥 목사의 말씀선포, 유금자 목사의 봉헌기도, 이주대 장로의 광고, 박만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를 전한 박장옥 목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대표회장)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평안임을 믿는다”며 “지혜로운 자는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어리석은 자는 부자라도 걱정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을 전한 준비위원장 이주대 장로(한국노숙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따르면, 원로목회자들의 직접 ‘산타’ 옷을 입고 노숙인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은 8년 전 겨울이었다. 이 장로는 “예수님은 계절을 가리지 않으시는 데, 우리의 관심은 왜 그렇게 계절 따라 움직일까 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했다.



한동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742명 모집

‘원조 무전공 입학 대학’ 접수 9월 8-12일

신입생 전원을 자율전공으로 선발하는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오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수시전형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시전형 총 모집인원은 742명으로, 학생부교과전형 235명, 학생부종합전형 507명으로 구성된다.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모든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전형별 모집인원은 △G-IMPACT인재 220명 △한동인재 100명(신설) △글로벌인재 75명(해외 출신자 대상) △대한학교 90명(대한학교 출신 학생 대상) △선교사자녀 30명(신설) △SW인재 7명 등이다.

신설 ‘한동인재·선교사자녀’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가장 눈여겨볼 사항은 신설된 ‘한동인재’ 전형과



‘선교사자녀’ 전형이다. 한동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교과 성적평가를 도입했으며,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교사자녀 전형은 한동대 설립 정신과 깊은 연관성으로 마련된 전형이며, 국내외 교단·교회·단체에서 시무한 경험이 있는 선교사 자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아 3일간 봉사

성누가회 힐링한즈 봉사단 아픔과 역사 직접 경험

성누가회 힐링한즈 봉사단(대표 신명섭 원장) 35명은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아 3일간 봉사, 예배, 교제, 역사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년들에게 소록도의 아픔과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성숙한

신앙과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고, 주민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삶을 잊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성누가회 힐링한즈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봉사단체로, 현재 약 1,000명의 대학생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일정은 나경환 사무총장이 인솔했다. 나 사무총장은 “소록도에는 17곳의 국가 유산이 있지만, 그중 12곳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통제구역”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소록도의 아픔과 하나님의 애통, 그리고 그 속에서 스며든 사랑의 역사를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소록도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7개 교회 중 일부는 인구 감소로 폐쇄된 상태다. 봉사단의 둘째 날 일정은 새벽 3시, 신성교회 성도들의 기도 준비와 함께 시작됐다.

봉사팀은 교회 청소와 가정 방문을 하며 준비한 선물과 간식을 전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불러 노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국가인권위 직원들 ‘불법 집단행위’ 의혹

주요섭 대표 등, 감사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직무감사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집단행위를 벌였으며 직무감찰을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됐다.

주요섭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11일 오후 3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성격을 띤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감사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주 대표는 “2025년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84조의2를 위반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했다”



고 주장했다.

청구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날 국가인권위원회 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

령 등 내란죄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를 지키는 직원들’ 명의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이들은 기자회견장에 모여 안건 통과를 막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사과한다고 밝히며 사과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 대표는 “이 기자회견문에는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 의사표현이 담겨 있다”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성서공회, 우크라이나어 성경·어린이성경 보내

한국교회 후원으로 8차 발송, 우크라이나어 성경 1,520부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선균 목사)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1천 5백 2십 부와



‘우크라이나어 어린이 성경’ 8천 7백 부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지난 8월 1일 발송했다.

발송된 성경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며, 특히 전쟁 가운데서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5개월.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쟁과 공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져 건물들이 파괴되고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와 의료진 등 약 1,200여 명이 머물던 병원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쟁의 피해가 지속되며 성경 보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군인들은 정기적인 기도와 성경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역 목

회자들은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기 위해 성경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성서공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보급 행사를 주최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외상 환자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암, 신경계 질환 건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전쟁 스트레스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성서공회가 주최한 성경 보급 행사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했고, 레크리에이션과 창작 워크숍, 성경 이야기 공부, 합동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행사 후에는 참석한 이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었다.

● 생명의 말씀 ●



유 봉 수 목사

● 교단 전임총회장
● 교단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자실기념금식기 도원에서 설교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도원 부원장님께서 제 설교를 듣더니 이렇게 비평하셨습니다. “당신이 한 그런 설교는 영장수 설교야!” 저는 그분의 독설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 자리에서 이를 갈며 ‘다시는 이 기도원에 오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분한 마음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주 금요일 새벽에 기도하던 중, 제 인생 최초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를 통해 많은 병자를 고칠 것이니 다시 기도원으로 가거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말씀에 차마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기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 쓴 소리를 하셨던 부원장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저를 보시자마자, “내가 당신을 시험해 보려고 험한 소리를 한 번 해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도원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경험한 첫 번째 기적(奇蹟) 사건은 목에 큰 혹이 달린 ‘김안심’이라는 처녀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제게 기도를 간청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 후에 혹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제 생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치료의 역사의 현장을 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오늘날도 치료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治癒, Divine healing)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해방 80주년, 광복·독립·건국 77주년 기념

우리나라는 올해로 해방 80주년, 광복 77주년, 독립 77주년, 건국 77주년을 맞는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국권을 잃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으나,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므로 해방(解放)을 맞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타의(他意)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을 해방과 함께 광복(光復)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실체와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항복한 날이다. 연합국에 항복한 일본은 그해 9월 11일까지 조선총독부의 국기 게양대에 일장기를 걸었었다.

그리고 미군정 3년을 보내고 나서 1948년에 광복과 독립과 건국을 이루게 된다. 이 때까지 우리나라는 독립하거나 진정한 광복(光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광복은 ‘영광스럽게 나라가 회복된 것’을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국가로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나중에는 해방과 광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둠(일제)을 뚫고 빛(해방)이 찾아온 것으로 혼선을 빚어, 국가독립기념일(Korean Independence Day)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외부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또 건국(建國)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1919년과 그로 인한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근대의 온전한 국가를 이루려면, 인구, 영토, 주권, 정부가 있어야 한다. 국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하면,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지리적 단위의 정치 결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가

첫째로 치유는 예수님의 구원에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구원에 따라오는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목만 오시오 하였던데 아내의 목만 온 것이 아니라 장롱, 이불, 세이코시계, 금반지 등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열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화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즉 구세주(the Savior)로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함께,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었고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의 종류에는 육체적인 병(physical diseases), 마음의 병(mental diseases), 신앙의 병(spiritual diseases)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병은 그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만해도 현재 두통, 위궤양, 장염, 피부건조증, 허리통증, 빈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로 주님의 치유를 구하며 열심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마음의 병이란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 귀신들린 것 등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지식과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이런 마음의 병으로 자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국가의 통치자까지도 그런 비참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신앙의 병은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병으로 무신앙, 우상숭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잘못된 신앙, 즉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복음주의연맹) 등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영적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게이, 레즈비언 등 동성연애를 행하거나 지지하는 비진리적인 사상으로 이런 영적 질병의 범주에 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신앙적 질병은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육체가 병들어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신앙적 질병

지배하는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가져야 하고,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질서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영토 내의 통치와 외부 세력과의 관계에서 외부 간섭을 안 받아야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역사 인식 속에서, 국가의 해방과 광복, 독립과 건국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한다. 건국(建國)은 이미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왕이 통치하던 전제(專制) 정치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 새로운 민주정치로 만들어진 국가이기에, 이를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올해 맞이하는 해방 80주년과 광복과 독립과 건국 77주년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분명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건국한 나라이기에, 한반도 역사 가운데 최고의 변명을 누리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 속에 한국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 지난 80년 동안 분단과 함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왔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여러 정황을 해방 후의 정국과 비슷하다는 주장과 함께 걱정들이 많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조짐이다.

해방 후에 미군정정이 1946년 7월 서울 지역의 1만명(실제적으로는 8,476명)이 참여를 대상으로 ‘미래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에 질문한 것에서, 당시 국민들은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를 지지했으며, 자본주의를 지지한 사람은 13% 뿐이었다. 놀랄 일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80%가 지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점차 좌경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1946년 3월 서울 시민 4,177명을 대상

을 지닌 것은 지옥행 티켓을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질병을 지니고 있는 이가 있다면 어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그 병을 고쳐야만 합니다.

둘째로 치유에는 반드시 믿음이 요구됩니다.

마가복음 9:23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7:1-10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로마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히브리 민족에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인이 그만 중병(重病)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다는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께 치유를 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오시라 하자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지 못하겠사오니 제가 부하에게 명하듯 그 계신 자리에서 다만 말씀만 하소서!”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하시며 명하시니 하인의 병이 즉시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믿음이 생겨날까요?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17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성령 받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2:9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병자들을 치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15을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들 위를 지나가기만 해도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9:12에는 바울의 앞치마를 환자의 몸에 덮어도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금식(禁食)할 때 믿음의 역사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곡기(穀氣)까지 끊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함으로 강한 믿음이 생기고 치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남자성도가 멀고 먼 파라과이(Paraguay)라는 나라에 가서 땀 공사를 하던 도중 실수로 떨어져 하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파라과이 최우수 의사 그룹에게 수술까지 받았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시던 모 목사님의 권유로 제가 사역하던 기도원에 와서 금식기도를 하는 중에 하리가 낫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치료의 믿음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치료는 당신의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17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4:29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풍랑 이는 바다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배에서 내려 물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은 뒤, 배에서 내리는 행동을 했을 때 물 위를 걷게 되는 초유(初有)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7-8에는 또 다른 기적이 등장합니다. 가나리는 지역에서 혼인 잔치가 열렸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잔치집에 초대 받으셨던 예수님께서서 그 상황을 들으시더니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믿고 행하여 물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연회에 처음 제공한 포도주 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을 때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 치료의 역사뿐이 아니라 축복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신명기 14:22-23에 “너

우리는 80년 전에 비록 타의에 의하여 해방이 되었으나, 3년 후 독립을 하고, 참된 광복을 맞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국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역사와 세계와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삭풍(朔風)이 몰아치는 만주 벌판에서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타국의 눈치를 보면서 애국봉신(愛國奉身)의 결의로, 국권 잃은 백성으로 이역만리에서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목 바쳐 건국충정(建國忠情)을 아끼지 않은 분들을 기억해야 한

우리는 80년 전에 비록 타의에 의하여 해방이 되었으나, 3년 후 독립을 하고, 참된 광복을 맞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국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역사와 세계와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삭풍(朔風)이 몰아치는 만주 벌판에서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타국의 눈치를 보면서 애국봉신(愛國奉身)의 결의로, 국권 잃은 백성으로 이역만리에서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목 바쳐 건국충정(建國忠情)을 아끼지 않은 분들을 기억해야 한

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3:10-12에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때루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결론.

중병을 앓는 어느 청년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침상에 누운 채로 목사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 의미로 베드로전서 2:24 “진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던 청년이 힘겨운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만약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또 주님께서서는 제 병도 고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하더니 곧 있는 힘을 다해 침대의 이불을 걷어차고 외투를 걸치고 추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나았다!” 라고 외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지러웠으나 계속 믿음으로 걸었을 때, 그는 온전히 치료받고 깨끗이 나았다는 간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침대를 박차고 나와 밖으로 가는 행동을 보일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 제일 불쌍한 목사가 중병을 고든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당신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치료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어찌배 여기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다. 그러려면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하고, 정치권의 통합과 상생,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지도자들도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거나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 앞에 있으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국민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부정과 불법과 부패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해방의 기쁨과 광복의 감격과 독립의 확고함과 건국의 정신으로 계속하여 변역과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회는 역사의 주인되신 하나님의

동 정

포항문화원 한동대와 협약



한동대학교 (총장 최도성) 환경해지역혁신원과 포항문화원이 지난 8월 5일 지역문화기반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인욱 한동해지역혁신원장(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교수)과 박승대 포항문화원장을 비롯한 양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핵심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과 대학의 전문성을 결합한다.

제51차 CBMC 한국대회



국내 기득 실업인과 전문인들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소멸과 사멸을 불독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제51차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한국대회(대회장 최범철 한국CBMC 중앙회장)가 13일 개최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창 1:28)는 주제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렸다.

‘행복한나눔 대림점’ 오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찬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이 ‘행복한나눔 대림점’ 문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행복한나눔 대림점은 기아대책이 국내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매장이다. 행복한나눔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 근무 경험과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장백석 사무총장에 박종호 목사



예장 백석 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제48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8월 11일 오전 총회회관에서 선거인단 선출 및 임원선출을 진행, 신임 사무총장에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안양총신교회)를 선출했다. 백석 총회는 증경회장단, 전현직 임원, 상비부서장, 노회장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먼저 선거인단 선출을 진행했다.

섭리와 국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심의 뜻을 깨달아서, 이것이 자유대한민국과 한반도 가운데 널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소망교회

개척사명을 가진 목사님을 후임 목회자로 초빙합니다

● 표어: 십자가 구원의 복 누리는 것(요 19:30)
● 목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마 25:23)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당촌1길 69-2(죽리 377) 031-674-6745 010-3947-2224 담임목사 강희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역자

진주순복음교회에서 8월 월례회 개최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진원 목사)는 지난 8월 7일(목) 오전 11시, 진주순복음교회(담임 이나건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산하 교회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서범근 목사(진주순복음교회)의 찬양인도로 시작해, 지방회 회계 고에스더 목사(순복음예빛교회)의 사회, 감라함 목사(사랑의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서범근 목사의 특별찬양, 사회자의 성경봉독, 지방회 총무 이나건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출 34:6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진리보다 종교연합, 물질주의, 인본주의, 자기사랑을 우선하는 영적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본질은 자비와 은혜, 오래 참으심이며,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하나님 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듭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며 롬 12:10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인천지방회가 되자"고 권면했다.

이어 김영현 목사(사랑의교회)의 헌금기도, 전임 지방회장 반인홍 목사(송도순복음교회)의 헌금축복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는 전임회장 김성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이창모 목사(전임회장)의 개회기도, 회원 점령과 총무·재정보고는 이나건 목사(고에스더 목사)가 각각 맡았다.

이어 안건 토의 후, 김정근 목사(전임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회무를 마쳤다.

이후 회원들은 기념촬영과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었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뒤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8월 12일(화)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예배는 배길선 목사(반석샘물교회)의 찬양인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지방회 총무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어 부회장 김진현 목사(비전순복음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모중앙단의 은혜로운 특송 후 김은숙 목사(선한순복음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김목사는 느 4:7 말씀을 본문으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 왕의 허락을 얻어 귀환, 성벽을 재건한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성벽 재건 과정에 많은 방해와 대적이 있었으나, 느헤미야는 기도와 경계로 이를 극복했다"며 "목회 현



장에서도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나라와 교단, 지방회를 위해 특별히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와 강신홍 목사(주사랑교회, 흥성단 사모)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정수 전도사(순복음세계교회)의

헌금기도와 김은숙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인도로 은혜롭게 마무리된 후, 파크엘림으로 이동해 오성사랑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중식과 내부 카페에서의 다과로 교제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배길선 목사와 이정수 전도사가 간증을 나누며 회원들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전 세계로 퍼지는 K-이단, '국제 이단대책 포럼'

신천지·통일교·전능신교 등 각국 전문가들 대응전략 공유

국내외 사이버 이단문제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이단문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8월 7일(목) 오후 대전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관에서 '국제 사이버 이단 전문가 학술교류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한이협)와 세계이단대책협회(대표 진용식 목사)가 공동 주최하고, 목원대학교 목회교육원이 협력했다.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의 이단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자국의 이단 실태와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포럼의 모두 발제를 맡은 진용식 목사(한

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 회장)는 '대한민국의 이단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진목사는 "오늘날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K-POP, 한국 라면, 그리고 한국산 사이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발 이단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교회, JMS, 구원파 등을 국내외 대표적 문제 단체로 지목했다.

신천지는 위장 포교와 정치 개입 의혹, 통일교는 일본에서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의 배경이 될 만큼 심각한 금전적·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JMS의 성범죄와 대학가 활동, 하나님의교회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 구원파 박옥

수 씨의 해외 세력 확장과 자녀들의 아동학대 연루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단 단체들의 폐해를 경고했다.

진목사는 이단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이단 예방 세미나를 통한 교육 강화

*이단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마련

*정통 교단의 철저한 연구와 이단 규정 확립

*기만적 포교 및 착취를 처벌할 '사이버 종교 규제법' 제정

또한 "이단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선교지, 연이은 태풍 피해 긴급 도움 요청

태풍 단테·에몽 잇따라 상륙 큰 피해

교단 필리핀지방회(회장 이요셉 목사) 산하 교회가 최근 연달아 발생한 태풍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교단 본부와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한 달 전, 필리핀 마닐라 인근 지역은 태풍 단테(Dante)와 에몽(Emong)이 잇따라 상륙하면서 강풍과 집중호우가 장기간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한 주 이상 모든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으며, 정부기관과 각종 공공 시설도 정상 운영이 중단되는 등 사회 전반이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고, 교회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는 가하면 성도들의 가정은 침수로 인해 가재도구를 잃고, 어렵게 일군 농작물도 물에 잠겨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필리핀지방회 회장 이요셉 선교사는 "앞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한다"며 교단 차원의 도움과 기도를 간곡히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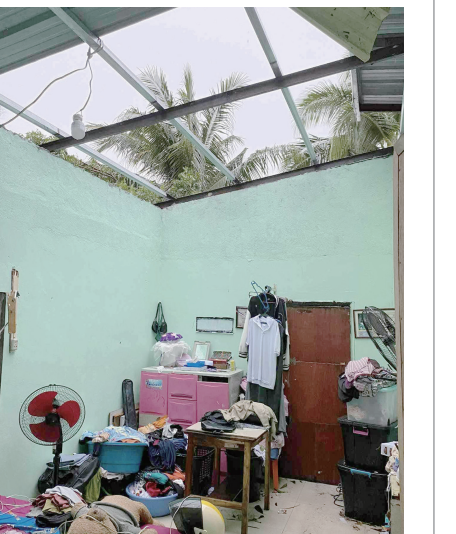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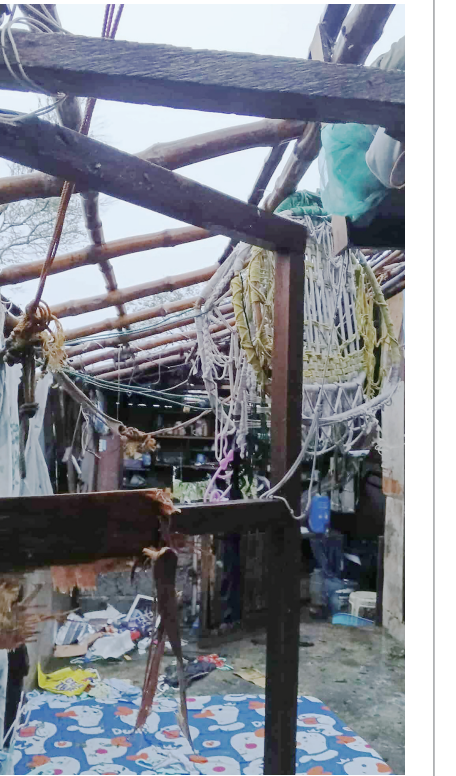
현재 피해 상황이 심각한 교회는 다음과 같다.

피자이 목사가 시무하는 순복음추수하는 크리스찬 교회, 그레이슨 목사가 시무하는 순복음카토교회, 웨키나 목사가 시무하는 순복음말리카파스 교회.

세 교회 모두 지역사회 복음화에 힘써 왔으나 이번 태풍으로 교회시설과 성도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입어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 교단 총회는 목양신문을 통해 이번 피해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하며, 교회와 성도 가정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적 지원이 이어지기를 호소했다.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내는 선교지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공급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이다.

후원문의 02-2675-5181



사단법인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고문

박종서 목사

고문

정진모 목사

감사

이성수 목사

감사

강신정 목사

논산시 대표회장

김인호 목사

충남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대부분부장

오종설 목사

상임본부장

안준호 목사

실무본부장

김병목 목사

사무총장

김진태 목사

제1부사무총장

김석중 목사

제2부사무총장

최은범 목사

서기

김동현 목사

회계

함동주 목사

부서기

박인규 목사

부회계

이재웅 목사

천안시 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아산시 대표회장

김병안 목사

당진시 대표회장

우경식 목사

서산시 대표회장

최장희 목사

태안군 대표회장

김종남 목사

예산군 대표회장

백돈걸 목사

홍성군 대표회장

함동주 목사

서천군 대표회장

전용해 목사

청양군 대표회장

김동원 목사

부여군 대표회장

방효길 목사

공주시 대표회장

김석중 목사

천안시 대표본부장

한익상 목사

아산시 대표본부장

김병안 목사

당진시 대표본부장

우경식 목사

서산시 대표본부장

최장희 목사

공주시 대표본부장

김종남 목사

태안군 대표본부장

백돈걸 목사

예산군 대표본부장

함동주 목사

홍성군 대표본부장

전용해 목사

서천군 대표본부장

김동원 목사

논산시 대표본부장

김인호 목사

신동성 목사

신동성 목사

안병찬 목사

안병찬 목사

조이철 목사

조이철 목사

김성환 목사

김성환 목사

소대영 목사

소대영 목사

이재웅 목사

이재웅 목사

김형철 목사

김형철 목사

김영복 목사

김영복 목사

이문용 목사

이문용 목사

한철희 목사

한철희 목사

국정기획위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공식화...총력 대응

교계·시민단체 “헌법 위반... 총력 저지 나설 것”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자,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기획위원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고 밝혔다.

교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평등’이라는 명칭이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해 왔다.

명칭 변경이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반연·진평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같은 날 국정기획위 발표 직전 기자회견을 열

고 “성평등가족부 설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국정기획위가 국민 제안을 받기 위해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자는 제안은 비추천 1,702명, 추천 38명으로 반대가 무려 44배나 많았다”며 “지난 7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3.4%가 명칭 변경에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며 “정부가 제3의 성과 수십 가지 젠더 개념을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 정책은 여성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도 남성 선수들이 ‘여성’을 자처하며 출전해 여성 선수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국은 2006년 젠더평등 정책을 도입했지만 19년 만에 대법원이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정기획위는 이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국회에도 강력히 촉구했다. “성평등가족부 설치의 헌법이 규정한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 준수 의무를 다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민의를 거스르는 정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추진과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

“서울시, 학부모 눈높이 맞는 올바른 성교육 기관 선정해야”

동반연, 진평연 등 시민사회단체들, 성명 통해 촉구



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동반연, 진평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립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내고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성교육

기관 선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8월 14일에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아하 성문화센터)의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한다고 한다”며 “그동안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왜곡된 성 윤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왔기에, 이번에는 올바른 윤리관과 가치관을 가진 기관에 위탁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그동안 위탁받은 기관은 전국 57개 성문화센터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성교육을 했다”며 “예로서, 2022년에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은 성평등,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등의 용어를 삭제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비난하며, 새 교육과정으로 성교육 후퇴가 불가피하며, 성소수자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센터장은 2001년부터 무려 25년 동안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맡고 있어서, 2024년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그동안 위탁받은 기관은 섹슈얼리티 교육을 옹호했다. 그런데,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것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성적체성·성적지향 등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그러기에, 2022년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섹

슈얼리티 교육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아하 성문화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섹슈얼리티 교육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아하 성문화센터가 주장하는 섹슈얼리티 교육 또는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있는 내용으로서, 한국 국민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서구의 급진적인 성교육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서구의 성교육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 교육을 옹호하며, 동성애도 다루어야 진정한 성교육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다수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성소수자가 있을 수 있기에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2022년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금지한 성평등 교육을 옹호한다”며 “이러한 태도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단체들은 “그러기에, 이번에는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진 기관이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받기를 학부모들은 바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기존 기관이 계속 위탁받도록 하려는 편

파적인 보도가 나와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왜곡된 보도에 흔들리지 말고,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해,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녀를 맡기고 싶은 기관으로 선정해 주길 촉구한다. 청소년기의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에 윤리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르쳐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서울시는 아하 성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도덕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기관인지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향해 △성문화센터를 학부모의 마음에 합한 도덕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기관에 위탁하라 △성평등,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등의 용어를 삭제한 2022년 개정교육과정 내용을 명확하게 준수하는 기관에 위탁하라 △성문화센터를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심어줄 기관에 위탁하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진 기관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 수 교 대 한
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 수 교 대 한
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8.15 광복 80주년 기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출판기념 및 국가기도회 개최



이광용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이하 예장총연)는 지난 8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출판기념 제80주년 8·15 국가기도회’를 열고, 광복의 은혜와 복음 140년의 역사를 기념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든든한 안보와 저출산 극복, 남북 복음통일,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회 회복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예배는 예장총연 상임회장 안병삼 목

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국가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통성기도 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대회사로 이어졌다.

이광용 목사는 대회사에서 “26년간 각 분야의 유능한 강사들을 모시고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에 바른 길을 제시해 왔으며, 그동안 주옥같은 강의 원고들을 역사에 남길 귀한 서적으로 출판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예장총연은 말씀을 목숨 걸고 사수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임을 강조하며,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거듭날 것을 역설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예장합동 보수 총회 오영호 목사의 특별찬양, 예장합동전국연합 총회 임원일동이 찬양을 드렸으며, 예장총연 고문 예영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예영수 목사는 겔 37:7-10 말씀을 본문으로 ‘큰 군대가 일어난다’라는 제목의 설

교를 통해 “이 땅의 교회의 모습, 나라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다. 오늘날에는 이단과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이 많다. 그러면서 마른 뼈와 같은 교회를 보여준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 한다. 마른 뼈가 붙어지고 근육과 조직이 붙여져도 마지막 생기가 없었다.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 큰 능력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부흥의 사인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마른 뼈를 경험하였지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민족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대한민국과 남북 복음통일 △대통령과 정계 지도자 △국가안보와 사회·경제 발전 △저출산 해결과 도덕·윤리 회복 △WCC·WEA 종교 다원주의·이단 척결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충만 △예장총연과 국가기도회를 위해 박대규 목사, 조규연 목사, 권혁은 목사, 이종태 목사, 양유식 목사, 오선미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기도했다.

이어 예장총연 고문 김기형 목사의 격려사, 예장총연 고문 김원식 목사의 축사



가 계속되었다. 이후 예장보수합동 총회원들의 헌금잔송과 법인이사 김순중 목사의 헌금기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2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출판기념 감사 순서로 예장총연 지도위원 김화인 목사의 사회로 열렸다. 상임회장 김병선 목사의 개회기도 후 강준오 목사(한국기독교언론법인이사장)는 서평을 통해 “이번 출판은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신앙 유산을 전하기 위한 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순서를 맡은 분들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고 “14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이후, 한국교회는 눈부신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며 민족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세상의 변화 속에 정체성과 사명을 재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책출간을 넘어, 한국교회가 나아가갈 길을 깊이 성찰하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귀한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했다.

아울러 이 귀한 자리를 준비한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

사드리며, 이번 출판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예장총연은 서기 김영복 목사의 인도로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8·15 광복 80주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라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또한 △국론 분열 극복과 화해·협력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 △한반도 평화 촉구 △가톨릭과의 신앙일치 시도 거부 △종교다원주의 반대 △남북 평화통일과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에스더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제창하고 만세삼창 후 상임회장 원동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살롱나비 / 2025년 8·15 광복 80주년 맞이하여

대한민국 광복의 지도자들은 투철한 기독교 정신, 애국적 신앙으로 자유민주국가를 세웠다

202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나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항일 독립전쟁의 피나는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였다.

뜻깊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현재 우리 국민의 마음은 매우 작잡한 가운데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안보 지형은 80년 전 당시처럼 세계 열강들의 냉혹한 각축전 속에서 국정의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와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해 이념 갈등과 감정적 대결 구도가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부디 올해 광복절은 지난해처럼 ‘건국 논쟁’으로 인한 국민분열·국론분열 사태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분기점으로 통일·변영·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롱나비는 지난 80년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서를 발표한다.

1.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당한 80년 전 광복절을 빼에 새겨 자강·독립 대한민국을 공고히 다져야 한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한 번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일본은 항복을 결정했고 이를 곧바로 미국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항복에 대한 공식적 선언은 지체되었는데, 그배후엔 천황의 체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 사이의 줄다리기 협상의 시간이 있었다. 협상이 지체된 와중에 8월 9일 한반도에 진군한 소련은 공격을 시작하였다. 미·일 간 협상 지연과 소련의 공격 틈바구니에서 너무나 원통하게도 한반도 분단의 비극이 잉태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항복을 통보한 그날에 항복이 공식화되었다면, 한반도 역사가 분명 달라졌을 거라는 해석이 유효하다. 본래 8월 11일 전쟁을 시작하려고 계획했던 소

련이 한반도에 진군하기 전에 전쟁이 종식되었다면, 국토 분단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역사 인식도 분분하다. 희망과 기대와 동시에 불안과 갈등이 교차하던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일본의 항복 소식과 함께 갑자기 찾아온 광복을 치밀한 준비 없이 맞닥뜨림으로 인해 이후 우리나라는 고통과 회한으로 가득한 현대사를 겪어야만 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면서 80년 전의 원수와 친구가 되는 현실에 만감이 교차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는 반일·친중 노선을 견지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에 대한 인식은 진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식민 지배의 역사는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조국을 되찾은 선열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하며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북·중·러 밀착 관계 속에 부각되는 한·미·일 동맹의 당위성 앞에서 일본에 화해와 협력의 손길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사실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늘날 자강·독립 대한민국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사도광산 추도식, 독도 영유권 등 한일 간 인식차가 첨예하게 드러날 난제가 쌓여있기에 일본 정부도 원만한 한·일 관계를 위해(군함도 강제노역 사실을 기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국민 임명식’이란 이름으로 이 대통령의 공식 취임 행사가 함께 진행될 일이다. 온 국민이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누리고 국가적 성취를 나누는 광복절 80주년 기념일을 사실상 이 대통령 2차 취임식으로 대체·회색시키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여기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2.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은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교육자책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8·15 해방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국한 10월 16일까지를 학계에서는 ‘좌익 득세기’로 일컫는데, 이는 당시에 해방 공간을 주도한 세력이 좌파였기 때문이다. 해방과 함께 온건 좌파여운형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발족되었다가, 곧이어 남로당의 박헌영이 이를 장악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을 선포하였다.

해방과 독립을 동일시했던 일반 국민은 일본이 몰라랐으니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북한에서 소련의 공산화 정책은 일관성 있게 속도전으로 강행되었지만, 남한에서의 미군정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합의는 물론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위험과 오해를 무릅쓰고 좌우합작을 배제한 채 1948년 8월 15일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를 비판하는 정치세력은 대통령이 되려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공격했지만, 이는 애국적 지적이다.

분단 정권을 수립하려는 스탈린의 지령(1945년 9월 20일자)에 따라 남부 분단은 일찌감치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혹은 대한민국 건국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교육자책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단독정부 수립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도 안 되고 강대국 간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며, 오직 자주·독립 국가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필생의 신념이 드러난 정세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3. 대한민국 건국의 주도 세력으로 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투철한 기독교 정신, 애국적 신앙, 확신에 찬 기도, 공개적 신앙고백을 오늘날 우리 세대가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은 수많은 성도들의 눈

물어린 기도의 결과였는데, 건국의 과정에서 우리 선조들은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드디어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가 개최되었는데, 사회자인 이승만 국회의장의 첫 마디는 신앙고백이었다. 이승만 국회의장에 의해 지목된 감리교 목사이자 국회의원 이윤영은 198명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회신에도 없는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기도로 시작된 제헌 국회는 7월 20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오천 년 우리 역사에 첫 번째로 개최한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되찾은 조국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려는 건국 대통령의 취임 연설의 첫마디도 역시 신앙고백이었다.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새로운 백성’은 정치의 변화와 제도의 혁명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바뀌는 기독교 복음에서 출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에서 건국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였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1퍼센트 남짓한 상황이었음에도 임시정부의 공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공개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신앙과 애국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대한민국 건국의 일등 공신 기독교 지도자들은 우리 세대가 본받아야 할 귀감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4.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투표권이 선진적으로 부여된 것은 남한이 북한과 달리 ‘국민에 의한 정치’를 행하는 ‘국민의 나라’임을 입증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로 미국 16대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치’)이 거론되는데, 이중 핵심은 ‘국민에 의한 정치’다. 국민에 의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투표(자유 투표·비밀 투표)로서 국민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통치자를 결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에 의거해 ‘북조선인민주의공화국’의 실체를 직시하면, 전혀 민주적이지 않으며 국민의 나라도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에 앞선 첫 번째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 그것은 북한의 선거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첫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총선거의 선진성은 남녀, 계급, 재산의 차별 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이 모두 참여하는 보통 선거였는데, 이는 당시 매우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선거였다. 특히 민주주의 종주국 영국에서 170년 걸리고 미국에서도 190년 걸린 차별 없는 보통 선거권을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할 때부터 모든 국민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나라가 장구한 세월 차근차근 쌓아 올린 정치적 선진화 과정을 일시에 해결해버린 데서 오는 부작용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통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남한이 북한과 대조적으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행하는 ‘국민의 나라’임을 확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5·10 선거를 통해 198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5. 민주 공화국을 표방한 건국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은 임시정부 헌법의 성취이자 완성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대한민국헌법)의 첫 문장에는 1948년 대한민국이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 정부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한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다.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군주제나 입헌 군주제를 취한 권력체가 아닌 것이다.

사실 1945년 8월까지 한국인들은 서구에서처럼 민주주의나 시민혁명을 경험해 본 일이 전무하였다. 그럼에도 민주 공화제를 기본 원리로 하는 제헌헌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의회 민주주의

를 운영하는 미국이 남한을 관할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민주 공화국 건립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해 온 민족 운동가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3.1운동 후 세워진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항을 제정하고 이후에 일관되게 이 헌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그러한 결실로 제헌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제헌헌법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의 근간이다.

6. 한국 교회는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해결 노력, 나아가 남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6·25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체결 보름 후인 8월 10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다. “북한 동포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고 모른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 있으며 결국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엔제부턴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박해당하는 현실을 당연시하면서 무정한 마음을 갖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 탈북민들의 반인권적 강제 구금과 지독한 고문, 가혹행위와 즉결 처형, 강제 복송이 강행되어도, 수십만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남성들의 성노리개가 되어 짐승처럼 내몰려도(“이 돼지 저 돼지”로 불리며) 침묵하며 방관하는 냉담한 동족이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딛고 미래를 향하는 길목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애민(愛民) 정신과 소중한 유지(遺志)를 받들어 불의한 독재자의 압제와 너무나 참혹한 인권유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한없이 절망하는 북녘땅의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는 북한 정권의 아만적 행태를 규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단절된 남북 교류의 물꼬를 다시금 터서 통일을 향한 기틀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기아대책, 민사고와 라오스 식수지원

청소년 직접 개발 정수기, 라오스 아이들에 깨끗한 물 선물

국내 최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 ‘웅달샘’ 학생들과 함께 라오스 비엔티엔 지역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6일까지 ‘2025 민사고 웅달샘 라오스 식수지원 적정기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민사고 웅달샘 학생 11명과 기아대책 관계자 2명 등 13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직접 개발한 ‘전기 없이 작동하는 3단계 중력형 정수기’를 현지 초등학교에 시범 설치하고 정수 성능을 검증했다.

라오스 식수지원 적정기술 봉사활동은 2023년 현지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기존 정수기에서 수질 불안

정 문제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비엔티엔 외곽 및 농촌 지역은 수도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위생 인식과 관리 인력이 부족해 아동들이 수인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기아대책과 민사고 학생들은 현지의 정수 기술 부족, 위생 인식 한계, 유지 인력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필터 교체가 쉽고 유지 관리가 간편한 중력형 정수기를 개발했다. 이 정수기는 외부 전력 없이 지역사회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립형 모델로, 약 900명의 현지 아동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보급하고 건강 증진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면에서 이어집니다

7.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1945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의 나라로 다시 번영하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과거의 침략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를 채택한 북한은 독재체제 하에서 국민이 기본적인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제모델을 본받은 국가자본주의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나 정치에서는 공산일당독재체제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여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번영하면서 주변 국가와도 함께 평화를 누리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

8. 21세기 한국의 가야할 길은 중 · 러의 대륙국가 영향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자유국가 일본, 유럽과 함께하는 해양 지향국가로 나가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정학적 근접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조선에 위해를 가하였다. 명(明)나라와 청(淸)나라는 조선을 조공국가로 지배했으며, 소련 스탈린은 극동 지역 안정화 명목으로 1937년 연해주 거주 조선인 17만명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고,

2차세계대전 후에는 김일성을 앞세워 북한에 조선인 민위원회를 만들었고, 한반도 공산화를 위하여 김일성의 남침을 허용하였다. 스탈린 죽음 후 6.25전쟁은 휴전했으나 남침 분단은 소련 제국주의 침략의 일부 분이었다. 중공의 모택동은 스탈린의 6.25 남침 허용을 뒷받침했고,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후 북한 공산군이 압록강까지 몰리자, 중공군을 개입시켜 한국의 자유통일을 방해하였고,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1945년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의 해방자요, 자유대한민국 건국의 후견인이요, 6.25전쟁시에는 3만 5천여 명 미군이 목숨을 바친 혈맹국이며, 지난 80년동안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경제 부흥의 지원자였다. 미국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선진 자유민주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중반에 군국주의로 조선을 식민지화했으나 해방 후에는 자유체제가 들어섰고,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번영한 자유민주국가가 되었다. 아직도 일본에 극우가 있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참회가 부족하나 이미 지나간 과거 일에 얽매어 미래의 선진 자유 민주국가의 새 길을 포기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협력하고 선진 자유 민주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

2025년 8월 11일

살림을 꾸꾸는 나비행동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광복 80주년에 붙여 나라의 복음화

내 나라, 내 강산
유수한 반 만년 우리 겨레여
푸른 하늘 높은 창공을 향해 비상하라.

긴세월 모진 풍파 가슴 시린 이고의 시간들.
아 낙수의 모진 감래 사무친 통탄을 녹여내고
한 송이 애국의 꽃 피워
뜨거운 심장으로 열정의 밀거름 되었다.
저마디의 방식으로 위대한 마음을 이어가리라.

아,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이며
그렇게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히 이어가리라.
아, 나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이며
우리는 한강의 기적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다시금 이 땅에 태어났다.
대한의 뱀이여 우리 서로 부족함을 딛고 함께 나아가자
복음의 원년 1832년 이 땅에 뿌려진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한국교회여, 일어서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아! 제 2의 한강행진이며

대한의 뱀 중흥의 가치 건설하자.

국민의 자유대한이며, 국민에 의한 자유대한이며

국민을 위한 자유대한이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길이 영광있으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길이 영광있으라.
오늘 우리 모두 동녘의 구국 제물 되리라.
제물 되리라.
가족세트전도는
첫주에는 천안지역 성지회를
통해서 가족세트전도집회를
열정적으로 훈련하였다.
지난주는
8.15를 맞이해서 각기관 단체에서
민족복음화는 가족구원부터 시작 된다고
박영수목사는 가는곳마다 서는곳마다
축사와 말씀을 선포하고
이수 교수는
광복 80주년의 나라사랑 영성시를
통해서 사람들의가슴을 통탄해 하였다.
그렇다. 나라사랑은 가족부터 구원하는
영접기도를 통해 온세계가 복음화 되는 것이다.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수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장기기증운동본부 제18대 유재수 이사장 취임

34년간 장기기증 운동 이끈 박진탁 이사장 명예이사장으로 추대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8월 13일(수) 오전 11시, 서울 은평구 역촌성결교회 본당에서 법인 이사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다. 이날 본부 제18대 이사장으로 유재수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으며 지난 34년간 장기기증 운동을 이끈 박진탁 이사장이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사랑으로 잇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드려진 이·취임 예배는 역촌성결교회 권영기 담임 목사의 기도와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의 설교, 강영선 목사(본부 이사, 한신대 명예교수)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정익 목사는 ‘관심과 배려’라는 제목의 설교로 녹 10:33~37 말씀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전하며 사랑의 실천인 장기기증의 본질에 대해 나눴다.

이날 이·취임식 예배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모임인 ‘도너패밀리’와 본부를 통해 생존 시에 신장을 기증하고 이식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새생명나눔회’ 회원들도 참석했다. 도너패밀리 회장 강호 목사는 기증인 유가족을 대표해 유재수 신임 이사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생명나눔 운동의 미래를 당부했다.

2013년부터는 본부 이사로 동역하며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에 기여해온 그는 “생명을 나누는 귀

한 사역에 동행하며 장기기증 운동의 가치를 더 널리 확산시키는 데 헌신하겠다.”라며,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와 장기기증 운동을 사회운동으로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아신대학교, 2025 ‘I-SCREAM’ 여름 캠프 개최

청소년의 정체성 회복과 복음의 본질을 향한 여정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가 주최하는 여름 청소년 사역 프로그램 ‘아이스크림(I-SCREAM)’ 캠프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팀수양관에서 개최됐다.

‘그 사랑, I-SCREAM’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된 기쁨을 깊이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I-SCREAM은 I(내가) + SCREAM(소리칩니다)의 합성어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소리를 의미한다. 이번 캠프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청소년 참가자들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였다.

이번 캠프에는 아신대학교 내 모든 학과(부)가 참여했다. 각 학과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공의 달란트를 살려, 예배팀, 미디어팀, 진행팀, 찬양팀, 상담/케어팀 등으로 조직, 진행했다.

각 팀은 캠프 전 수개월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공동체적인 삶의 훈련과 기도회를 통해 캠프의 영적 흐름을 하나로 묶어왔다. 이는 섬김 그 자체가 사역이자 삶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훈련의 과정이었다.

‘I-SCREAM’ 캠프는 단지 여름 한 철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다. 캠프를 통해 결단하고 변화된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가,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해가는 것이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5. 8. 29(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자료실→서식다운로드→교단서식→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2부 작성→지방회에 제출→지방회임원회 심의→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5. 9. 8(월) 오후 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5. 9. 29(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5. 8. 29(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 사 고 시 : ① 일시: 2026. 2. 2(월)~3(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 3층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은 1995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엄하석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 · 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언뜻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악인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은 가장 낮은 산도 혼자서는 오를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강영우 박사의 말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1976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피츠버그대학교 교육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92년 사회복지법인 국제교육 재활교류재단을 창설해 회장직을 맡고 루스벨트재단 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유엔 장애위원회의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 상원의 인준을 받는 고위 공직자 500명 중 한 명인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자문보로서 미국 내 장애인 인권 분야에 큰 영향을 발휘해 한국인으로서는 명예를 높였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중앙정부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정책 특별보였습니다.

그분은 “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하여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2005년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오신 강영우 박사를 처음 만난 소감은 참으로 모든 대화에 진지하였으며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강영우 박사의 불행했던 인생스토리를 잠시 소개하면, 1944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친구들과 공을 치다가 불행하게도 공이 눈에 맞는 바람에 실명이 되었으며, 그 후 13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자신과 두 동생을 돌보던 누나도 과로로 죽고, 9살 된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남동생은 절물점으로, 자신은 맹인재활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상인도 어려운 일들을 해냈으며, 인생에서 승리한 복

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놀라운 정신력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칸첸중가, 안나푸르나... 등은 아직도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지상 최고의 봉우리입니다. 지독한 눈보라와 극심한 추위, 심한 산소 결핍, 그리고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지는 자신의 약함과 싸워서 이것들을 이긴 사람들은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에도 올라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산을 오르는 어려움의 때는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긴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두 번 바꾼 나의 인생이라고 말한 헬렌 켈러는 “단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안 쳐다보고 있으면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 배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직공의 아들인 링컨이 증거해 주었는데, 그의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계신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장애인 영웅으로 미국 역사상 전후후무한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목적 있는 인생이 승리한다’ 마음 속의 공포심 외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일의 성취는 오늘의 비전과 꿈으로 결정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9:2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어떻게 그런 사람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뜻에 마음이 민첩한 사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 될 수 있나요?

아버지 안에 거하면
후히 주시는 지혜로
마음이 민첩해 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결코 잊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아버지됨을 잊지 않을 때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 할 때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릴 때
날마다 빛 되신 말씀 안에 거할 때..



단 5:12, 6:3 민첩한 다니엘을 묵상하다.

아 ~~ !!
그렇군요... 확실하네요.

사설

혼돈의 시대, 한국교회의 길을 묻다

오늘날 전 세계는 '다시'라는 구호에 열광하고 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미국,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 '위대한 러시아'를 외치는 러시아까지, 강력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거 회복의 열망이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 구호들은 위대한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열망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타민족과 국가에 대한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슬로건을 넘어, 불안한 현실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대중의 깊은 욕망을 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한반도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야심과 이에 따른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 정치 상황 또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흑역사는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K-컬처의 나라가 외신에 비치는 부끄러운 모습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일부 독재 국가들에서나 볼 법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정권의 충실한 행동대장이었던 검찰과 언론은 권력이 바뀌자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이전 정권을 물어뜯고, 권력 주변을 맴돌던 불나방들은 새로운 권력을 찾아 옮겨간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이중잣대는 검찰 수사의 신뢰도를 잃게 만들고, '제2의 논두렁 시계' 같은 망신주기식 수사는 정권 따라 춤추는 정치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함을 드러낸다. 4년 전 찾아내지 못했던 녹취파일이 이제야 발견되고,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사건이 재조명되는 모습은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정권이 바뀌 후에도 무탈하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다. 상대를 향한 같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현 정권 또한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4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법사

위원장, 과거 코인 투자와 재개발 땅지 투기로 낙마했다가 다시 오직에 복귀하는 인사들, 그리고 입시 비리와 기부금 횡령으로 복역했던 이들의 특별 사면까지, 국민들의 눈에는 여야 모두 똑같이 보일 뿐이다. 특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이들이 정치판에 가득한 현실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우리는 세상의 '다시' 구호에 동조하여 과거의 영광만을 되찾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라는 구호가 민족주의의 파도를 타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때, 교회는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 '막사니즘(물질만능주의)'에 빠져 본질을 잃어버렸던 과오를 철저히 회개하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강력한 리더십이 위기의 시대에 혈로를 뚫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기억하지만, 이제에는 강자의 논리나 민족적 자긍심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

교회는 세상의 '다시'가 아닌, 복음의 '다시'를 선포해야 한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여, 개인의 욕망과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 나아가길 같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이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히 13:16-19)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8월 29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엄 하 석
총 무 목사 오 세 준